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76장)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태 17,1-9)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태 17,1-9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남과 축복에 대하여 말씀해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집착하는 어떤 것(재물, 직위, 사랑, 가족 등)에서 떠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아브람함의 예가 그러하고, 구약의 야곱과 팔려갔던 요셉의 예가 그러하며, 오늘 예수님의 변모하는 모습 좌우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의 삶 또한 그러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결정적인 순간에 집을 떠나 광야로 나가셨고 우리나라의 첫 사제들인 김대건과 최양업도 조국의 구원사업을 위해 이역만리 타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그리고 참다운 영광을 위해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변모의 주인공들,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진정한 구원과 영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는 고통과 수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십자가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목표로 하여 떠나야 합니까? 무작정 길을 나섰다가는 방향도 못 찾고 헤매는 우스운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예를 들은 모든 성인들이 길을 떠날 때는 반드시 목표가 있었고, 그 구체적인 목표를 분명하게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손수 이끌어주심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이끄심을 성서묵상과 영적상담,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알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알려주는 단어가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자, 소명을 깨닫는 자는 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기에 잘 극복해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활의 여러 혼란을 체험함으로써 진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그 방법은 하느님의 말씀(성경과 성령)임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방황을 완전히 끝내게 해주시는 분도 하느님임을 체험할 수 있었고, 이 구원의 체험을 전하고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했고, 마침내 다니던 대학교에서 진로를 바꾸어 신학교에 입학하여 사제의 길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도 같은 응답으로 전혀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간 것이고, 이에 응답하여 길을 걸은 지 어언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1982년 1월 대학생활 회심 후). 저는 이 기간을 돌아보며 모든 발자국에 주님의 은총과 섭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처럼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하느님의 구원을 전달하라는 그 분의 소명을 깊이 깨닫게 되고, 바로 그것이 저의 사명이며 소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소공동체 봉사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과 어떤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수원교구 3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아모스서의 간추린 소개” 5분 신앙상식

예언자 활동 시기

기원전 760년에서 750년 사이로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선포 내용

아모스는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결코 벌하지 않으시리라 믿으며 온갖 죄악에 무감각하고 무사태평한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위선과 부익부 빈익빈, 착취와 억압, 사치와 방종, 불의와 부정 등의 죄악을 저지릅니다. 아모스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만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징벌을 면치 못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모스서의 구성

1. 머리글(1,1-2,16)
   (1) 아모스의 메시지 시작(1,1-2)
   (2)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신탁(1,3-2,16)
2. 이스라엘에 대한 신탁(3,1-6,14)
   (1)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3,1-5,17)
   (2) 유배 경고(5,18-6,14)
3. 다섯 가지 환시에 관한 이야기(7,1-9.10)
4. 이스라엘의 회복(9,11-15)

공지사항

- 3월 10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기쁜 부활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함과 자기 성찰 그리고 열린 마음을 통해 사순시기를 뜻 깊게 준비합시다.

- “2011년 사순절 신앙생활 실천표”를 잘 실천해 봅시다.

다음 달 성경말씀

요한 11,1-45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 라자로를 살리신 그리스도는 죽음조차 극복하는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분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보다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판단에 기대어 참 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있으나 실은 무덤 속의 라자로처럼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하고 서로 나누어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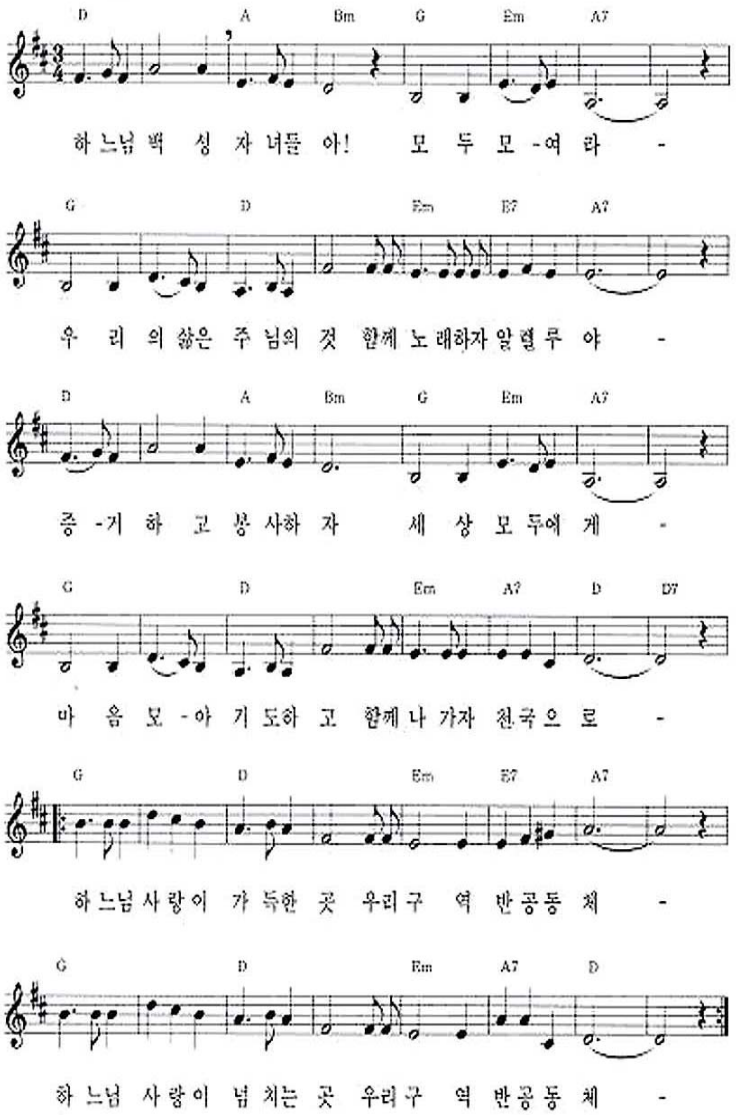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

기도하며...